

coupang

쿠팡이 답하라!

노동자 잡는 야간 노동
무한속도 새벽 배송

-노동자, 소비자, 사회단체 집담회

패널

쿠팡CFS 물류센터 노동자

쿠팡CLS 캠프 노동자

쿠팡CLS 택배 노동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

일시: 25. 11. 14(금) 오전 10:30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문의: kilshlabor@gmail.com

주최: 쿠팡노동자의건강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쿠팡이 답하라!

노동자 잡는 야간노동
무한 속도 새벽 배송

- 노동자, 소비자, 시민단체 집담회

일시: 2025년 11월 14일 (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주최: 쿠팡노동자의건강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자료집 목차

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1. 마감이 지배하는 쿠팡 물류센터의 새벽: 새벽배송은 물류센터 노동을
1.X배속 한다5p
정성용(쿠팡 CFS 물류센터 노동자)
2. 매일이 전쟁통인 소분류 현장-캠프(CLS) 현장 경험9p
조혜진(쿠팡 CLS 캠프 소분 노동자)
3. 쿠팡 킥플렉스 실태 12p
쿠팡 CLS 택배 노동자
4. 쿠팡의 새벽배송, 야간고정노동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15p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활동가
5. 공적 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독박 돌봄과 과도한 노동이 또다른 과도한
노동을 부르는 악순환.....18p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 [참고] 쿠팡 로켓배송 전 과정과 고용구조20p
- [참고] 쿠팡 사망사건 일지24p
- [참고] 공공운수노조 성명 “새벽배송 위협의 핵심지역 경기도청의 책임 있는 행
정을 촉구합니다”(2025.11.6.)26p
- [참고] 물류센터지부 성명 “쿠팡 심야시간 택배 배송 제한 논의를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의 출발점으로!(2025.11.3.)28p
- [참고]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수료 삭감 보도자료(2025.3.6.) 30p

마감이 지배하는 쿠팡 물류센터의 새벽 : 새벽배송은 물류센터 노동을 1.X배속 한다

정성용(쿠팡 CFS 물류센터 노동자)

1. 쿠팡물류센터 오후조(야간조) 노동의 실태



로켓배송

- **일반 로켓배송:** 쿠팡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문하면 다음날까지 배송되는 서비스입니다.
- **새벽배송:** 로켓와우 또는 로켓프레시 회원을 위한 서비스로, 자정(밤 11시 59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오전 7시 전)에 배송됩니다.
- **당일배송:** 오전에 주문하면 그날 안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 **특징:** 수백만 종의 다양한 상품을 신속하게 배송하며, 로켓와우 회원은 무료 배송 및 반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배송

- **대상:** 주로 신선식품, 냉동/냉장식품을 대상으로 하며, 로켓와우 및 로켓프레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 **주문 마감 시간:** 보통 밤 11시 59분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 7시 이전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 **배송 보장:** 오후 7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 이전에 배송을 보장합니다.
- **제외 지역:** 일부 지역은 새벽배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쿠팡물류센터에는 4대 공정이 있음. 입고, 출고, 허브, 재고조사. 입고와 재고조사는

마감과 큰 관련이 없는 공정. 출고와 허브가 마감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 출고는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집품(picking)하여 포장(packing) 과정**까지. 허브는 포장된 상품들을 쿠팡캠프별로 **분류**하고 화물차에 실을 수 있도록 **적재하는 과정**.
- 각 화물차들이 쿠팡캠프로 상품을 싣고 가는 과정까지가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쿠팡인천4센터 OB공정 오후조(야간조) 마감]

(18시 ~ 익일 04시까지 근무)

1. 21시 05분 (심야배송)
2. 22시 15분 (심야배송)
3. 00시 59분 (심야배송)
4. 01시 49분 (지방배송)
5. 04시 30분 (오전배송)

* 04시 퇴근 전 집품 공정에서 마무리, 마무리가 안 될 경우 관리자만 연장 또는 노동자들까지 연장

- 대략 2020년, 2021년까지는 쿠팡물류센터에도 허브공정 중심으로 심야조(21시 ~ 익일 06시까지 근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진 추세.
- 핵심 작업이 '로켓프레시 주문'인 신선센터의 경우 오후조(야간조) 근무시간이 오후 5시30분부터 익일 02시30분까지. 마감이 상온센터에 비해서 더 빡빡하게 몰려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특히 마감 때문에 식사시간을 오후 7시 정도에 제공하는 점으로 신선센터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음.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마감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일 것을 보임. 신선센터는 중간조도 운영함.(아래 참조)

근무시간		
근무시간	공정	급여
주간조 08시~17시	일반	82,720원
	허브	84,640원
주간중간조 08시~12시 30분	일반	41,360원
	허브	42,320원
오후조 17시 30분~02시 30분	일반	105,985원
	허브	108,035원
심야조 21시~06시	일반	118,910원
	허브	121,210원
심야중간조 21시~02시 30분	일반	72,380원
	허브	73,780원

- 신선센터 오후조(야간조)는 식사시간 이후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 1분 1초의 휴게시간도 없이 일해야 함. 그럼에도 마감 때문에 식사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7시나 8시 정도로 당긴 것.
- 상온센터도 휴게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 이는 주간조와 오후조(야간조)가 마찬가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시간마다 20분씩(15분씩)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야간 노동의 건강과 안정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주간조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각 고용형태별 주간조/오후조(야간조)/심야조 인원과 비율을 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상시직 근로자 확대 관련

□ 운영 현황

- (상시직 근로자 비율) 24년 11월 현재 당사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정규직·계약직)의 비중은 약 73%이며,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약 27%임.
- 당사가 운영중인 물류센터 현장 업무는 특별한 자격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근로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채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고용형태별 고용 현황(24.11월 현재)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일용직
인 원	56,901	7,417	10,095	23,810	15,579
비 율	100%	13.0%	17.7%	41.8%	27.4%

- 심야조가 있는 신선센터는 더 극명하지만, 주간조보다 오후조(야간조)인원이 더 많은 느낌이 있음.

2. 왜 오후조(야간조) 근무를 선택하는가, 건강 문제

- 쿠팡물류센터는 근무조가 고정 주간, 고정 야간임. 정규직 관리자들만 교대제.
- 현장 노동자들에게 교대제는 선택사항이 아님. 주간이나 야간이나라는 선택지만 있음.
- 주로 오후조(야간조)를 선택하는 이유는 야간수당(월 30만 원 정도), 투잡, 육아가 대부분. 일부 개인 생활 패턴도 있음.
- 야간수당과 투잡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이유.
-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의 낮은 평균 근속이 야간노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 야간노동에 살아남은 사람들. (집중 건강 실태 조사, 시행의 어려움)
- 수면장애, 만성피로, 우울증, 소화불량
- 가족과의 관계 문제

3. 오후조(야간조) 차별

1) 시급

성장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 래 ---

1. 2025년 L1 현장직 시급 인상

구분		L1			
		Day		Swing	
		12개월 까지	13개월 이상	12개월 까지	13개월 이상
FC	2024년	10,120 원	10,360 원	9,970 원	10,160 원
	2025년	10,220 원	10,460 원	10,070 원	10,260 원
HUB	2024년	10,980 원	11,220 원	10,460 원	10,890 원
	2025년	11,080 원	11,320 원	10,560 원	10,750 원

을 한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성장을 위하여 헌신하신 사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아 래 ---

1. 2025년 L1 현장직 시급 인상

구분		L1			
		Day		Swing	
		12개월 까지	13개월 이상	12개월 까지	13개월 이상
FC	2024년	9,880	10,120	9,860	9,970
	2025년	10,030	10,220	10,030	10,070
HUB	2024년	11,280	11,520	10,710	10,900
	2025년	11,380	11,620	10,810	11,000

2) EHS(건강관리팀) 운영 안 함

3) 기타

- 셔틀버스 & 연장노동
- 더위와 추위

: 폭염문제가 오후조(야간조)를 피해가지 않는다

: 추위문제는 일부 오후조(야간조)들에게 심각한 상황이다

매일이 전쟁통인 소분류 현장-캠프(CLS) 현장 경험

조혜진(전 CLS 일용직 노동자)

저는 2022년말부터 2025년 초까지 CLS, 소위 쿠팡 캠프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소분 담당 노동자입니다. 주로 새벽배송 물량을 취급하는 1wave에서 근무했고, 저녁 6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30분까지 야간, 심야 시간에 어림잡아 1년 반 정도 일했습니다. 일용직 헬퍼, 조장으로 일했고 근무 공정은 주로 스캔/소분류에서 봉투에 담긴 PB 상품 바코드를 찍고 번호대별로 분류하는 작업과 팔레트 이동하는 무버를 했었고, 가끔씩 라인/리젝/오버플로우 등 다양한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경험을 논문으로 썼는데, 제목이 ‘전쟁통같은 쿠팡에서 노동자로 살아남기’입니다. 새벽배송을 보내기 위한 쿠팡 캠프는 그야말로 전쟁통입니다. 근무시간 중 두 번의 마감을 치기 위해서 캠프에서는 [세상에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일을 몰아칩니다. ‘스캔은 1초에 1개씩 찍어라’, ‘하차 속도 더 빨리 해라’, ‘소분류 버텨라’, ‘라인 정리 빨리해라’ 이렇게 작업 속도를 높이는 관리자들의 주문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방송됩니다. 당일 리딩(전체 총괄)을 맡은 관리자는 소터 2층에 올라가서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조장에게 무전 또는 마이크로 직접 업무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조장은 행동 교정이 필요한 헬퍼에게 가서 업무 교육을 빙자한 압박을 주어서 작업을 빨리 하게 하거나 때로는 다른 공정으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공정을 이동할 때도 ‘견지 말고 뛰라’고 방송해서 사람들을 단 1초라도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노조에 와서 쿠팡 물류센터의 휴게시간을 요구하는 걸 봤는데요. 캠프에서는 사실 휴게시간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잠깐 내려오지 않는 틈에 힘들어서 걸터 앉아있거나, 옆에서 일하는 동료와 잠깐 농담을 주고 받는 것만으로도 지적 대상이 됩니다. 아주 친절할 수준에서는 ‘가만히 있지 마세요. 관리자가 혼내요’라고 일러주는 정도, 또는 관리자가 ‘쉬지 말고 뛰라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만약 못된 관리자에게 잘못 걸리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고성으로 야단을 맞으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압적인 태도로 욕설을 하거나 집에 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캠프에 처음 일하러 온 ‘신규자’가 고된 노동 강도와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 가는 일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 일하러 온 사람이 상당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캠프에 갔을 때의 인상, 사람들과 조금 친해지고 나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사람들이 다들 화가 가득 차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배송의 속도 압박은 작업장 내에서 관리자가 헬퍼를 계속해서 감시, 통제, 압박하게 만들고, 헬퍼들은 지시에 따라 일하긴 하지만 마음 속에 괴로움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한 관리자가 저에게 본업을 묻길래 사회학을 공부한다고 했더니 ‘저에게도 사회학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곳에서 일하

면서 성질이 너무 나빠진 것 같아요'라며 짧은 푸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라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캠프 노동자들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그치는 것이 일상인 캠프에서 단 하루도 다툼, 부상, 상처가 없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런 노동을 왜 1년반씩이나 지속했는지, 왜 야간노동을 하다가 그만둔 노동자들이 다시 캠프 야간노동으로 돌아오는지 묻는다면 그건 그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쿠팡에 처음 간 건 낮시간 근무였습니다.(10:00~14:30) 저에게는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했는데, 낮시간 근무는 주6일을 해도 월 100만원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대신 저녁부터 심야 시간에는 근무 타임이 길어서 그나마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일한 만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가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그나마 집 근처에서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쿠팡 캠프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캠프의 근무시간대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임금 규모, 그리고 무너져버린 한국 사회의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저를 야간노동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캠프 일이 과연 아르바이트일까요? 쿠팡과 일용직 노동자는 서로 아르바이트라고 말할 수 있지만 노동구조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쿠팡 캠프는 언제나 고정 물량이 있고, 시기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일정 규모의 물량은 언제나 유지됩니다. 그리고 캠프 일용직 노동자는 단체카톡방을 통해서 2주마다 스케줄링해서 근무일정을 확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결국 물류센터 캠프의 정해진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 고정적인 인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단순히 야간이고, 일용직이라고 해서 단순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라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분류'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어야 하는 것인데, 캠프의 고용 구조가 이를 아르바이트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저는 야간노동을 주5~6회 정도 1년 반 동안 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거짓말인데요, 발언문에 당당하게 거짓말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저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일하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의 불안정한 일상을 버티려면 아파도 아프지 않아야 했습니다. 야간노동이 너무 쉬우면 졸려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이 더 정신없어서 몸의 고통을 잘 못 느끼게 하는 캠프에서 고정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면 시간이 가는줄 모르게 어느샌가 일이 끝나있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 혹사시켰던 손가락 마디마디가 통통 부어서 손이 오므려지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도, 3년간 같은 일을 한 형님도 그렇습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저도 손이 아파서 플라스틱 병뚜껑을 제손으로 따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플라스틱 병뚜껑을 딸 때 그 손가락 관절 사이사이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5일보다 6일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하는 동안은 고통이

느껴지지 않지만 쉬는 날이 지속되면 그동안 쌓여왔던 피로와 몸의 고통들이 밀려오고, 다시 일하러 나가기 무서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캠프 노동자들은 보통 일한지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정산한 후 한두달 쉬고 다시 일하러 나오는데요. 일을 쉬기 시작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썩으로 버텼었던 허리, 어깨, 손, 발목 등의 고통과 각종 면역질환이 몰려와서 몸을 꼼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역설적이게도 쉬지 않고 고강도로 야간에 노동하는 것은 현재 시점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그 영향을 증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정 시기에 필요에 의해서 야간노동을 선택했지만 다시 돌아가 일정 규모의 주간 근무 일정이 있다면 무조건 주간 노동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지속했던 야간 노동을 끝내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주변에 붙여진 상점들이 즐비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야간노동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에도 좋지 않습니다. 물류 노동자 말고도 야간노동을 하는,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동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하는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해도 그 일을 하는 노동자의 삶도 함께 지켜지는 노동구조가 함께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킥플렉스 실태

쿠팡 CLS 택배 노동자

2025.10 쿠팡 킥플렉스 실태조사(전국택배노조, 총 679명 응답) 결과 중

- 쿠팡 택배노동자, 주간 일평균 11.6시간, 야간 일평균 9.7시간 근무
- 주간 : 평균 노동시간 주5일 58시간, 주6일 69.6시간, 격주5일 63.8시간
- 야간, 평균 노동시간 주5일 60시간, 주6일 72.6시간, 격주5일 66.55시간 (야간할증 포함)
- 주5일 근무 해도 노동시간이 산재 과로사 판정기준인 60시간 수준. 과로사 위험 개선 안돼
- 하루 분류작업 2.6시간, 프레스백 세척정리반납 0.93시간... 휴게시간 22.6분에 그쳐 (0.38시간)
- "자유로운 휴가 사용 어려워" 82.2%에 달해... 이유는 클렌징(28.4%), 용차비 부담(25.7%), 계약조건으로 자율성 자체가 없다(25.1%)
- 전년 대비 "배송물량 증가" 67.7%인데, "수입증가" 20.0%에 그쳐, "수입 감소" 30.5%나 돼... 매년 수수료 삭감 영향
- 76.4%, "프레스백 회수 작년보다 더 힘들어져"

■ 쿠팡 택배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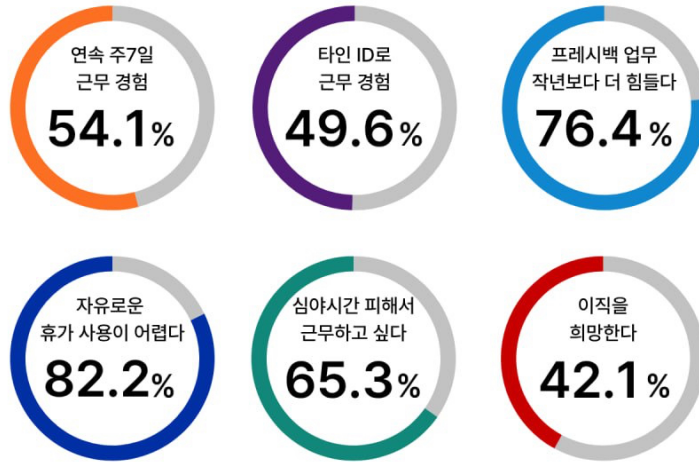
11.1 하루 평균 근무시간

2.6 분류작업 소요 시간

388 하루 평균 물품 배송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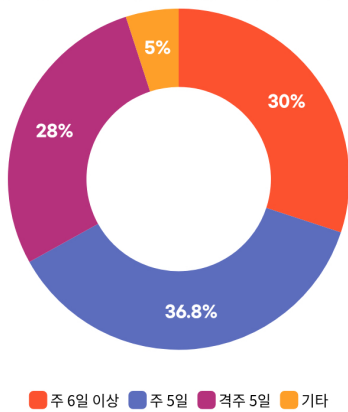
22.6 식사 및 휴게 시간(분)

쿠팡 택배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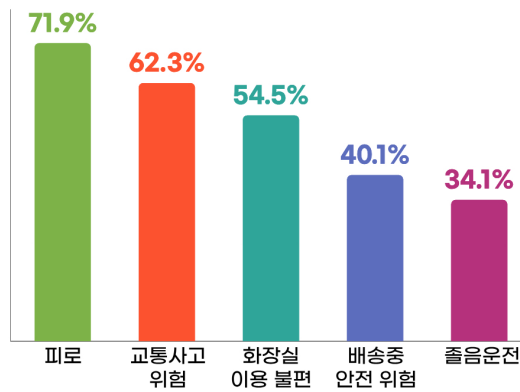


쿠팡 택배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2025)

쿠팡 택배 노동자 근무일



야간 배송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참고] 쿠팡CLS와 타 택배사 노동조건 비교

	타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분류작업	- 수행 또는 미수행 선택. - 수행 시 분류비 지급	수행(통소분). 분류비 못받음.
다회전 배송	- 거의 안하고, 예외적으로 진행. - 새벽배송 없음	- 주간 2~2.5회전, 심야 3회전 - 계약서에 2회전배송 명시(2주간 2번 이상 시 해고요건)
배송마감 시간	없음	- 주간 : 신선식품 20시 - 심야 : 모든 상품 07시
프레시백	없음	- 반품회수(6~800원)와 노동강도 비슷하나 건당 단돈 100원 지급. - 프레시백 반납,정리,초벌청소 업무 추가
노동시간	주50~55시간 수준	- 주6일, 주60시간 초과사례 다수 - 야간할증 시 새벽배송 노동자 대부분 포함 추정.
주휴일	매주 일요일 휴무 (토요일 밤 허브가동 멈춤)	365일 허브 가동 - 주말 근무, 주중 휴무 압박 - 계약서에 휴일 배송율 명시 (70% 미만 시 해고요건)
공휴일 명절연휴	- 모두 쉽. 예) 작년 추석 6일 모두 쉬었음.	365일 허브 가동. 명절, 공휴일 상관 없이 주6일 근무. - 주휴일 포함시켜야 일부 쉴 수 있음. 예) 작년 추석 6일 중 최대 이틀 휴무 (주휴일 지정 시) - 계약서에 명절 당일배송율 명시 (40% 미만 시 해고요건)
택배없는 날	쉽	없음.
고용안정	6년 계약갱신청구권 - 계약해지 요건 (60일 이전 2회이상 서면으로 시정요구 불구 시정 없을 경우)	-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사실상 해고될 수 있는 구조. 2회전배송율, 신선식품배송율, 수행률 등 미달 시 구역 회수(클렌징). - 상시 해고제도 '클렌징'으로 생활물류법 상 6년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요건 무력화. 상시 고용불안 시달림

쿠팡의 새벽배송, 야간고정노동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활동가

심야'고정'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교대근무는 그 자체로 수면장애, 만성 피로, 혈당 불균형과 당뇨병, 소화 장애, 우울증/불안 등 여러 건강 문제를 낳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미 '야간근로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을 발암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야간'고정'이 교대제보다 더 건강에 나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고정 노동이 교대근무보다 건강에 나쁘고,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야맞교대나 3교대 근무자에 비해 야간고정 노동자들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결과, 그리고 고정 야간 근무자에게서 더 많은 결근, 약물 복용(제산제 및 아세트아미노펜 등), 위장 질환, 더 나쁜 자체 평가 체력을 보입니다. 야간 교대 근무 일정을 잘 견딜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수면 부족, 체력 저하,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고있다는 결과를 보입니다.(강모열, 2024, 병원 야간전담 노동과 노동자 건강권,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야간고정노동에 완전히 생체리듬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3% 미만)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 가족과의 시간, 주말(또는 휴무일)에는 주간 생활로 돌아가는 일상 때문에 완전히 전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건강 수준, 2024〉

- 총 270명 4개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에 조사한 결과, 업무 후 수면장애(44.07%), 우울감(17.41%), 위장장애(24.44%), 시력 저하(28.52%), 피로감(51.11%) 새로 생겼다고 답함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2024〉

- 지난 한 달 수면 중 '자는 동안 자주 깬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 2024 새벽배송 연구 참여 노동자에서 41.8%, 2023 근로환경조사 노동자 14.1%에 비해 3.55배 높음

- 지난 한 달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율: 2024 새벽배송 연구 참여 노동자에서 65%, 2023 근로환경조사 노동자 18.4%에 비해 3.94배 높음

- 2023 근로환경조사 야간노동자 수면장애('잠들기 어려움')와 비교했을 때 2024 새벽배송 참여자가 2.66배 높았음.

- 2023 근로환경조사 야간노동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우울 증상 유병율이 2.78배 더 높았음.

이미 교대제 야간고정 노동은 몸에 유해한데, 고정야간노동이 관리적 압박과 노동강도의 감소, 더 많은 쉬는 날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지금처럼 하는 한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 쿠팡의 새벽배송의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이미 해롭지만 더욱 더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심야노동 규제

ILO 협약 171호는 '야간노동을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를 포함하여 연속 7시간 이상 수행된 노동'으로 정의합니다. 야간노동자에게 무상 건강검진권(4조), 야간노동 응급조치 및 치료체계(5조), 건강상 야간노동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 전환 및 동일한 급부를 보장(6조), 노동자 대표와 정기 협의(11조)를 규정¹⁾하고 있습니다. 협약과 함께 채택된 ILO 권고 178호는 24시간 내 노동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야간노동 시간은 주간 노동보다 짧거나 같게, 위험하거나 부담이 큰 직종에서는 야간연장근로를 금지하며, 두 교대 사이에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고, 야간근무 중에는 휴식과 식사 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²⁾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EU(유럽연합)는 노동시간지침(Directive 2003/88/EC)에서 야간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4시간 기준 평균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위험하거나 정신적 부담이 큰 업무는 24시간당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거의 유일하게 법으로 '야간노동을 원칙 금지'한다고 밝히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노동법 제2장 제1조). 특히 1조는 야간노동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연속성 또는 공익적 목적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에 관한 강행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여러 나라들은 점포 영업시간 규제가 있어 야간노동 규제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정하고, 덴마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영업,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의무적으로 폐점해야 합니다. 호주 역시 주중 영업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폐점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야간노동의 건강 영향을 인식하고 되도록 줄이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노동자 건강을 보장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 및 규제 장치 없이 현재의 노동강도 및 시간동안 하는 것은 야간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1) 이외에도 임신·출산 전후 여성노동자에 야간노동 대신 주간노동, 사회보장급여, 출산휴가 연장 등 대체수단 보장(8조), 야간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간·임금·급부 형태의 적절한 보상(9조) △야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10조) 등을 규정함

2) 이외에도 금전적 보상은 유급 연차휴가, 유급 공휴일 및 통상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타 결근시의 보수 계산에 포함돼야 하며, 또한 사회보장 기여금 및 급부 산정시에도 반영되어야 함을 규정함

쿠팡에서의 심야시간 노동강도

2024년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 조사에서 **주관적 노동강도(보그 지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아주 편함’(6점), ‘약함’(8점), ‘중간정도’(10점), ‘약간 힘들’(12점), ‘힘들’(13점), ‘많이 힘들’(15점), ‘매우 힘들’(17점), ‘최대로 힘들’(20점)까지 순위변수로 응답하게 하였습니다. 전체 노동자 노동강도 **평균은 14.33점**이었고, 이는 **‘달리면서 일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쿠팡 노동자들에서 14.69**로 다른 현장보다 노동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접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배송 시간) 맞추려면 저희가 죽어라 뛰어야”** 한다,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습도하고 안 맞으면 못 쉬어요, 단 10분도”**라는 노동자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야간노동이 이미 부담인데다 높은 노동강도까지 견뎌야 합니다.

2024년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들은 지난 한 달간 ‘아파도 일한 경험’에 대해 94%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노동조건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건강 이상 경험 비율이 58%. 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운 노동자 비율이 33.6%로 나타났습니다. 휴식 부족과 물량 압박이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노조의 **〈쿠팡 배송기사 노동실태 조사결과, 2025.10〉**에서도 마찬가지로,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의 약 30%는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1.1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며, **하루 평균 388건의 물품을 배송**해야 하는 막대한 노동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에 20시, 야간에는 07시로 배송 마감시간 기준**을 둔 작업 방식이 노동강도를 과도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소분작업과 다회전 배송, 그리고 마감시간 미준수에 따른 클렌징은 하루 휴식시간 22.6분만을 쉬며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갈아넣으며 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낮 시간보다 야간에 노동강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없고, 다회전 배송과 마감시간 압박으로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기만 합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노동자,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가 사망한 노동자. 법에서 건강을 보장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건당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이 야간노동으로 내몰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이 새벽배송, 야간노동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사회. 이제야 쿠팡이 답해야 하고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공적 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독박 돌봄과 과도한 노동이 또다른 과도한 노동을 부르는 악순환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1. 새벽배송이 필요한 사람들, 왜 필요한가

제 주변 4~50대, 특히 여성들은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동시에 돌보면서 두 아이까지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돌봄 노동자는 숨 한번 쉴 틈 없이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장보기는 불가하고,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에서 제공하는 구독서비스는 필수적이고 절실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주간배송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나 쉴 틈 없이 하루가 돌아가면 저녁이 되서야 내일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하며 온라인 장을 볼 수 있고 이는 새벽배송으로 이어집니다. 과도한 돌봄노동이 불완전하고 위험한 다른 노동을 생성, 확장한 것입니다.

- 돌봄노동자: **양육자들**,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간병 등 이중 삼중 돌봄노동자, 혹은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 집안일까지 '제2의 노동'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공적 돌봄 체계가 촘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을 볼 물리적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 장애인, 질병, 노인가구: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노인 재가요양 서비스가 충분한 '장보기' 시간까지 보장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공 배송(혹은 장보기 대행) 인프라가 부재한 현실에서, 민간 기업의 새벽배송이 그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까지 떠맡게 된 것입니다.
-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1인 가구: 야근 후 귀가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 식재료나 생필품을 구매할 방법이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결국 새벽배송은 '공적 돌봄의 실패'와 '장시간 노동 구조'가 만들어낸, 빈틈을 파고든 민간 시장의 해결책입니다. 이는 한 개인(돌봄노동자)의 과도한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또 다른 개인(배송기사)의 '과도한 야간 노동'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2. 새벽배송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

새벽배송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 사고 특히 과로사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불안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갖는 것 역시 소비자입니다. 저희도 소비자이자 노동자인만큼 무엇보다 노동자가 안전한 배송시스템을 원합니다. 물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새벽배송을 '필수품'으로 만든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즉각적인 책임 이행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 논의에 기업이 빠져 있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낍니다. 사회적 공백을 통해 큰 이윤을 얻고 있는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은 즉각적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주변 소비자들 가운데 주간에 배송을 시켰어도 기업의 편의를 위해 새벽배송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 이윤 극대화과 편의주의에만 몰린 시스템을 당장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스템을 투명화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실 권리, 안전, 건강'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완전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과로사를 유발하는 배송 시스템을 폐기하고, 야간노동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보기를 위한 공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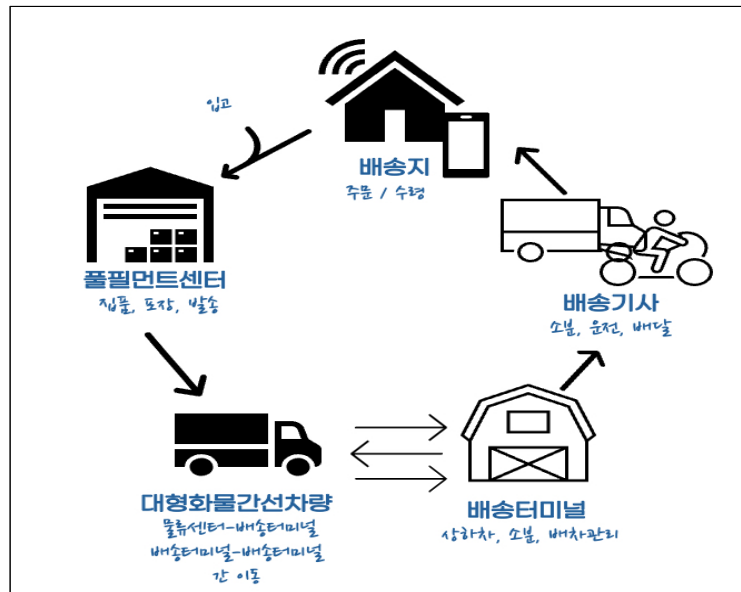
양육자, 노인, 장애인 등 이중 삼중의 돌봄 노동자와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이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의 착취적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물론 현재 장보기 등의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아예 부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격요건 등이 상당히 엄격하고, 자격요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처럼 즉각적인 서비스는 아니고 정해진 요일 혹은 날짜와 시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지자체나 지역 복지관이 주도하는 '공공 장보기 대행', '공공 배송망', 혹은 지역 상권과 연계한 안전한 당일 배송 시스템, 특히 정기적 배송 등이 필요합니다.

"장보기 시간 등 돌봄(자기돌봄 포함)을 위한 1일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주 4.5일제를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른 오후 퇴근이 보편화된다면, 우리는 보다 충분한 돌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적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과도한 노동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며칠' 일 할지를 논하기 전에, '오늘' 몇 시에 퇴근해 돌봄을 하고 장을 볼 수 있을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참고] 쿠팡 로켓배송 전 과정과 고용구조

1. 쿠팡의 로켓배송 전 과정



[그림 1] 로켓배송 서비스 전 과정의 노동에 대한 그림

쿠팡의 로켓배송은 밤 12시 이전 주문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에 배송이 완료되는 것을 약속하는 물류서비스이다. 빠른 배송이 가능한 것은 주문 이후 공정을 최소화하고 분업화된 노동력 배치, 디지털 기술로 이루어지는 지시, 관리, 감독의 효율화한 결정체이다. 로켓배송의 전 과정은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배송지와 가까운 풀필먼트센터로 전달되어 노동자들의 집품부터 B2C 공정이 시작된다. 풀필먼트센터 노동자들은 밤 10시부터 새벽배송 물량이 늘어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집품은 오전 1시, 최종적으로 간선차량에 탑승시키는 허브 공정의 경우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마감 압박을 겪는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기 위하여 배송지와 거리에 따라 마감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속도 압박이 가장 빠른 시간이 야간노동시간에 해당하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로켓배송의 모든 공정에서 동일하다.

풀필먼트센터 노동자들이 집품 당시 물건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의 형태로 포장 이전의 상태다. 풀필먼트센터는 주문에 대한 예측 하에 미리 물건을 입고시켜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PDA라고 하는 기기를 활용하여 물건의 위치,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담아오는 공정을 거쳐 포장 공간으로 컨베이어벨트를 태워 내리면 여기서 이를 분리하고 각 배송지별로 포장하는 공정, 이를 다시 허브로 내려 지역별로 나가는 간선차량에 싣기 위해 적재하고 랍핑하여 탑을 쌓는 공정을 거친다. 공정이 마무리되면 EPJ(electric pallet jack, 전동자키)를 활용해 차량에 탑승하면 간선차량을 타고 물류터미널로 이동한다.

간선차량은 11톤 윙카로 풀필먼트센터와 물류터미널 사이를 운행하거나 물류터미널에

서 물류터미널 사이를 운행한다. 풀필먼트센터는 적재된 물건이 택배 포장 이전의 상태라면 물류터미널에서는 ‘택배’상태의 물건을 다룬다. 물류터미널은 서브허브, 캠프, 모바 일캠프 등 다양한 형태인데, 서브허브 등에서는 자동스캔과 오토소터를 통한 분류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져 캠프 등 다음 물류터미널로 나갈 물건을 구분하는 공정이 이루어지고, 작은 규모의 도시형 캠프의 경우 소분 공정 없이 롤테이너를 간선차량이 싣어오면 이를 각 배송기사가 소분, 상차하는 공정이 이루어진다. 간선차량 노동자들은 순방향(배송지 방향) 이동 시에는 ‘택배’를 운송하고 마감시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시간 소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조정하여 뒷 차량이 늦어질 경우 이를 떼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류가 상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간선차량이 배치되어야 배송지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풀필먼트센터에서 출발한 물건도 적시에 배송될 수 있기 때문에, 간선차량 노동자들의 대기시간이 유동적인 편이다. 예측할 수 없이 긴 대기시간을 요구받는 것은 쿠팡 간선차량 운수 노동자들의 고충 중 하나다. 물량의 유동성으로 급하게 CLS캠프 소속 1톤 차량이 간선차량으로 배치되어 운행되는 경우도 흔하다. 역방향(풀필먼트센터 방향)으로 운행하는 간선차량에는 수거된 프레스백, 반품 물건 등이 실리는데 정규직 간선차량 노동자들의 경우 직접 아이스팩을 처리하는 공정이나 프레스백 정리 등의 추가 업무를 할당받기도 한다.

배송터미널 내 구역은 헬퍼라고 하는 소분노동자들이 물건을 소분하는 공간과 차량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으로 구분된다. 헬퍼들은 물건을 소분하여 롤테이너에 담거나, 상하차 업무, 프레스백 세척 및 적재 공정 등을 담당한다. 캠프 노동자들의 노동공정은 단순한데 오토소터의 속도를 높이거나, 높은 곳에서 관리자가 직접 눈으로 살피며 속도가 떨어지는 구역 노동자들에게 마이크로 소리를 질러 속도를 높이라 압박하는 형태의 통제 속에서 높은 노동강도를 겪는다.

마지막으로 배송 공정은 입차 후 자신의 구역을 포함한 비슷한 구역의 배송을 담당하는 배송기사 수명이 하나의 롤테이너에 담긴 물건 중 자신의 물건을 찾는 통소분 공정을 진행하며 배송나갈 물건을 ‘쿠팡플렉스’ 어플을 통해 전산에 등록한다. 물건 스캔 후에는 자신에게 할당된 구역의 배송지, 반품물건 회수지, 프레스백 회수지 등의 정보가 지도에 표시된다. 밤 8시 정도 입차하여 시작되는 소분 후 배송은 최소 3회전 반복된다. 통소분 공정을 다른 기사들과 함께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캠프에 복귀했다 다시 나가야 하는데, 마감을 맞추기 위해서 짧은 시간의 텀에 가까운 거리라도 배송을 나가게 되거나, 마지막 회전시 오전 7시 마감을 넘길 것 같으면 마감 물건과 배송을 해야하지만 로켓배송은 아닌 물건을 구분하여 자체적으로 1회전을 더 도는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마감을 지키지 않으면 클렌징(현재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한 성과평가를 경유함)과 같은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을 포기하고 다회전 배송에 몰릴 수 밖에 없다.

2. 쿠팡 고용구조의 특성

쿠팡의 고용구조는 종적, 횡적인 균열을 보인다. 종적균열은 일반적으로 균열일터가 의

미하는 직접고용 외 다른 계약형태와 원하청 구조 등을 통한 균열을 의미한다. 더하여 횡적균열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인원을 최소화 하고, 물량이 증가하는 데 맞춰 추가 동원을 하되 평상시에는 이에 대한 업무배치를 아예 축소시키는 유동적 노동력 대기시키는 방식이다.

풀필먼트센터 노동자들의 경우 현재는 쿠팡의 자회사인 CFS에 직고용 된 형태가 일반적이다. 계약직 사원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되기까지 수습기간, 계약연장 국면의 평가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이나 관리자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고용만 안정화 될 뿐 높은 신체적 피로와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오래 근속하기 어렵다. 다수의 풀필먼트센터 노동자들은 단기사원(일용직)으로, 매일 쿠팡치 어플을 통해 출근을 신청하고 '확정' 혹은 '마감'을 받아 출근여부가 결정된다. 쿠팡은 풀필먼트센터 노동자의 높은 비중을 상시적인 일용직 채용으로 커버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1차 마감 문자 후 출근시간 2시간 전에도 출근 확정시켜 출근을 유도하거나 출근확정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를 하겠다는 엄포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출근에 대한 강압으로 작동한다. 또한 물량이 갑자기 증가할 때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출근을 유도하는 방식은 일용직-직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을 빠르게 동원하는 데 잘 사용된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갑자기 동원되더라도 원바코드(일용직ID)를 통하여 쿠팡 내부 전산 내에서 근무이력 등이 관리되고, 언제든 출근이 막히거나 출근시 쿠팡이 원하는 대로 재배치 되는 등 내부노동자처럼 관리되고 있다.

간선차량 노동자 중 정규직노동자들은 유일하게 (주) 쿠팡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다. 2016년 자회사 분사화 이후 쿠팡친구(정규직 배송기사) 중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부 기사 등이 간선차량 운전으로 전환배치되기도 했다. 전환배치된 쿠팡친구는 레벨제와 인센티브 구조를 그대로 적용받아 다른 간선차량 노동자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 그 외 외채(외부채용)으로 불리는 경우는 간선차량운전기사로 직무가 고정되어 뽑힌 사람들로 정규직이지만 고정월급제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낮은 월급을 받고, 프레스백 세척, 상하차 업무 등 추가 업무를 요구받기도 한다. 정규직 외 간선차량은 대리점과 계약하여 매출물량을 할당받은 기사가 있고, 개인사업자로 개인차량으로 건별 계약을 하는 기사가 있는데 매출계약기사의 경우 24시간마다 배차표를 받고 주 6일 차량에서 대기하며 할당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상 생활을 모두 차량 내부에서 소화하고 일상적 과로 상태에 내몰린다. 건별계약의 경우 화물 플랫폼을 통하여 알선되는데, 쿠팡 물량은 실시간 소분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 기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화물 업계의 전반적 침체로 물량이 거의 없어 이를 거를 수 없는 조건이 작동하고 있다.

물류터미널 소분노동자의 경우, 자회사인 CLS에 고용된 인원으로 대부분이 고정된 노동력까지도 일용직이다³⁾. 캠프의 경우 업무 강도가 높기로 소문이 나, 인력을 구하기 어

3) CLS캠프는 지난해까지도 일부 캠프의 경우 직고용 대신 불법파견 형태를 띄거나 노동자임이 분명한데도 3.3계약(개인사업자 계약)을 하는 등 불법 고용 문제가 심각했다. 고용노동부의 전수조사 이후 2025년 초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대부분 일용직 고용이다.

려운데 프로모션, 일용직 만근수당 등으로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규헬퍼의 경우 매일 문자로 출근신청 후 확정을 받아 출근한다. 고정헬퍼도 일용직이지만 이들은 카톡방을 통해 관리자와 소통하고 구글폼으로 원하는 근무일을 미리 제출하면 관리자가 근무표에 고정헬퍼들의 이름을 넣어 2주 전에 배치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다. 계약은 일용직이지만 실제 인적관리는 파트타임 계약직처럼 움직인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가 출근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고정헬퍼의 경우 일용직이지만 중간관리자 역할인 ‘조장’을 맡고 수당을 더 받는 등 일반적인 일용직을 넘어선 형식의 계약유지가 이루어진다.

배송기사의 경우 로켓배송 초반에는 쿠팡맨(현 쿠팡친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최대 2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배송을 많이 할 경우 이에 대한 임금 인센티브와 평가를 통한 레벨 승급, 이에 따른 임금 상승 가능성을 가진 직군이였다. 그러나 최근 쿠팡의 배송 물량은 대체로 지입기사인 쿼플렉서에게 할당되고, 쿠팡친구 중 다수가 배송을 하기 위해서 퇴사 후 쿼플렉서로 다시 자신이 일하던 캠프의 대리점과 계약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정규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쿠팡친구는 배송물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캠프 내 다른 부수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센티브나 승진구조가 무용해졌다. 쿠팡친구와 쿼플렉서 모두 ‘쿠팡플렉스’라는 동일한 어플로 업무를 전산화되어 원청의 높은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쿼플렉서로 고정 노동력을 전환하기 전 카플렉스와 워크맨 등 직노동자를 활용한 배송인력 동원을 시도했으나 로켓배송 특성상 안정적 배송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소수의 배송기사만 직고용 형태로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로켓배송 일터의 종적, 횡적 균열과 일의 형태

로켓배송 과정		풀필먼트센터	간선차량	물류터미널	배송
종적균열 (노동자의 주 계약상대)		CFS(자회사)	쿠팡	CLS(자회사)	대리점
횡적균열 (동일 업무-다층적 동원)	고정된 노동력	(무기)계약직	쿠드라이버 (고정월급제 정규직) + 쿠팡친구 (레벨제, 전환배치)	고정헬퍼(일용직)	쿼플렉스 (개인사업자)
	유동적 노동력	단기사원(일용직)	매출(계약)기사 + 개인사업 화물기사	신규헬퍼(일용직)	쿠팡친구 (레벨제 정규직) + 카플렉스(직노동자)

참고: 복수의 형태로 배치된 노동력의 경우 더 주요한 형태를 볼드체로 표기함. 현장에서 부르는 용어로 표기.

참고문헌

고태은·이승윤(2025)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통제와 사용자책임의 은폐구조: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사례연구 . 한국사회정책 32(3) pp. 81-118

고태은·이승윤(2025) 비가시적 컨베이어벨트의 구축과 노동통제: 쿠팡의 로켓배송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학회 신진연구자 여름캠프 발표원고.

[참고] 쿠팡 사망사건 일지

*아래 명단은 노동조합이 파악한 인원이며,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쿠팡노동자만 25명.

... 과로사로 인정되거나 추정되는 건 17명.

<2020년>

- 1월 쿠팡 동탄 물류센터 일용직 여성 노동자 최 모 씨(50대) 야간근무 후 사망 (과로 추정)
- 3월 쿠팡 안산 1 캠프 배송노동자 A 씨(40대) 야간배송 중 사망 (과로 추정)
- 5월 쿠팡 인천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 B 씨(40대) 야간노동 중 사망 (과로 추정)
- 6월 쿠팡 천안 물류센터 도급업체 노동자 박 모 씨(39세)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사망
-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 계약직 청년노동자 장덕준(20대) 야간노동 후 사망 (과로 산재 인정)
- 11월 쿠팡 마장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최 모 씨(50대) 근무 중 쓰러져 사망 (과로 추정)

<2021년>

- 3월 쿠팡 구로캠프 관리자 C 씨(40대) 귀가 후 사망 (과로 추정)
- 3월 쿠팡 송파 1 캠프 야간 배송노동자 이 모 씨(40대) 고시원에서 사망 (과로 추정)
- 3월 쿠팡 인천 지역 배송노동자 김 모 씨(40대) 배송 중 사망 (과로 추정)

<2022년>

- 2월 쿠팡 동탄 물류센터 노동자 노 모 씨(50대)

<2023년>

- 1월 쿠팡 인천 3 캠프 하청노동자 D 씨(50대)
- 1월 쿠팡 광주 물류센터 노동자 정 모 씨(40대)
- 2월 쿠팡 인천 4센터 노동자 F 씨(50대)
- 2월 쿠팡 목천 물류센터 하청 화물노동자 송 모 씨(60대)
- 10월 쿠팡 군포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박 모 씨(60대) 사망 (과로 추정: 심장비대, 주60시간초과)
- 10월 쿠팡 인천 주간 택배노동자 G씨 뇌출혈로 병원 이송됐으나 뇌사판정 받고 사망(과로 추정)

<2024년>

- 5월 쿠팡 남양주 2 캠프 배송노동자 정슬기 씨(40대) 야간노동 후 자택에서 사망 (산재 인정)
- 7월 쿠팡 경산 쿼플렉스 택배 노동자 H씨 폭우에 휩쓸려 사망
- 7월 쿠팡 제주 택배소분장 택배 분류노동자 I씨 분류작업 중 쓰러져 사망 (과로 추정)
- 7월 쿠팡 화성 동탄 택배 노동자 J씨(50대) 야간노동 후 사망 (산재 인정)
- 8월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 주 K씨 캠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 8월 쿠팡 시흥택배소분장 택배 분류노동자 김명규님(40대) 근무 중 사망 (산재 인정)

<2025년>

- 3월 쿠팡 안성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 진 모 씨(50대) 새벽 근무 중 쓰러져 사망 (과로 추정)
- 8월 쿠팡 안성 주간 택배노동자 L씨 병원 응급실 대기 중 사망(과로 추정: 심근경색, 일12시간, 7일근무후1일휴무)
- 10월 쿠팡 대구4캠프 주간 택배노동자 M씨 집에서 쓰러져 사망(과로 추정: 뇌출혈, 60시간 초과)
- 11월 쿠팡 제주1캠프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오모씨, 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중상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 졸음운전으로 추정(졸음운전은 과로 인정될 시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참고] 공공운수노조 성명

새벽배송 위험의 핵심지역 경기도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 2025년 경기도청 행정사무감사 11월 7일 노동국, 11월 12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한 실태조사와 책임있는 행정 조치 촉구

새벽배송 위험의 핵심,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0~5시 초심야 시간 새벽배송 금지’가 쟁점이되어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라디오를 통해 공개토론을 진행할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벽배송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산업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심야·야간 노동을 동반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물류센터의 70% 이상이 밀집된 경기지역은 새벽배송이 야기하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 문제 해결의 핵심 고리입니다. 공공운수노조 물류단지노동자전략조직사업단(이하 물류단지사업단)은 경기도의회가 11월 7일 노동국, 11월 10일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야노동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을 적극 다루기를 촉구합니다.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⁴⁾로 물류단지 심야노동 위험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 쿠팡, 지마켓, 올리브영 등 물류센터 창고노동자들의 심야 장시간 노동과 불법적 고용 관행은 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 진단	실태조사 결과
심야 장시간 노동 실태	- 물류센터 노동자의 12.6%가 고정 심야근무를 수행 - 계약직 노동자들은 주 6일, 하루 10시간, 즉 주당 60시간의 야간 노동을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하는 실태 확인
건강권 침해 및 열악한 환경	- 응답자들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더위(3.51점), 추위(3.42점), 장시간 노동(3.36점), 먼지(분진)(3.31점) 등 심각한 수준을 지적 - 물류센터 공간이 '작업장'이 아닌 '창고'로서 설계된 공간의 특징이자 문제점을 보여줌
불법적 고용 관행	-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계약(가짜 3.3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4대 보험 미가입 상태. 또한, 원청-하청 간의 '다층적 하청 구조' 속에서 불법 파견 관행이 만연
고용 불안정 가중	- 업체들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실 것을 '권유' - 영세 2차 하청업체들은 위장 폐업을 반복하여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가중 -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셔틀을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초과 근무가 강요

4) 공공운수노조 물류단지노동자전략조직사업단의 의뢰로 사회공공연구원이 2025년 5월부터 600여명의 화성 동탄, 용인 양지 물류단지 창고노동자, 화물운송노동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김직수·장인하·강경희(2025).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09.
http://m.ppip.or.kr/board_MRhQ99/7621#0

-물류단지 화물운송노동자들은 1회 2-3시간씩 걸리는 야간 상하차작업 부담전가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⁵⁾.

문제 진단	실태조사 근거
운송 시스템의 위험	- 본래 업무가 아닌 야간 상하차 작업을 요구받는 경우가 빈번 - 다품목·대량 화물 운송 증가로 복잡한 검수 작업 부담과 납품 시간 압박을 느껴 위험 가중
과로 및 장시간 노동	- 1일 평균 운행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44.3% - 하루 평균 1시간 15분 미만 휴식(식사시간 포함) 응답은 65.0%
휴식권 침해 및 위험 노출	- 운행 외 1일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71.1%에 이르지만, 대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64.9% 압도적 - 주차 공간 부족으로 야간에 쉴 곳이 없어 졸음 운전 위험에 노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의 물류단지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합니다.

물류단지사업단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류단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를 경기도청 노동국에 촉구합니다. 이미 관련 조례로 실태조사 근거를 갖춘 만큼, 경기도가 이를 적극 활용해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철도항만물류국에는 장시간·야간노동과 휴게시설 부족 등으로 위험에 노출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류단지사업단은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노동자 보호대책>토론회⁶⁾에 참석한 고은정 도의원의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 실태조사 절실”하다는 주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물류단지사업단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경기지역 물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끝.

5) 오마이뉴스, 임석규, "화물 운전기사에게 상하차까지, 공짜 노동 당연시되고 있어", 오마이뉴스, 25.10.2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6130

6) 251027_경기지역물류단지_토론회 자료집 <http://gofile.me/5Hnww/ft7kdocsq>

[참고] 공공운수노조 물류지부 성명

쿠팡 심야시간 택배 배송 제한 논의를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의 출발점으로!

- 쿠팡 심야시간 택배 배송 제한에 대한 전국물류센터지부의 입장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심야시간(자정-05시) 택배 배송 제한 조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져가던 보수 정치인을 필두로 각종 언론에서 최근 퇴직금 미지급 이슈로 궁지에 몰린 쿠팡을 비호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불쌍스럽지만, 택배·물류 노동자들의 야간 노동 문제와 규제 방안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쿠팡의 새벽배송은 그동안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아왔으며, 그 결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새벽배송 마감 압박에 속에서 야간 노동을 하며 극한의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만 했다는 점에서 쿠팡의 새벽배송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규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물류센터 노동자의 입장에서 심야시간 택배 배송 제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논의의 출발점: 야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지속적인 야간 노동이 수면장애와 뇌혈관·심장질환, 암,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의학에서 정설이다. 야간 노동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야간 노동의 영향은 노동자의 몸에 서서히 축적되어 그 부정적 결과가 나중에서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야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당장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야간 노동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야간 노동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지는 못한다. 따라서 논의의 방향은 노동자의 건강에 명백하게 위협이 되는 야간 노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한국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다시피 한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정 노동시간 규제가 국제적인 노동 규범으로 자리잡은 지금 노동자가 ‘선택’한 것이니 노동시간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여전히 횡행한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임금 삭감 없고 고용이 보장되는 심야 시간 노동 규제는 가능하다

심야시간 노동 규제 문제의 핵심은 왜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왜 야간 노동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야간 노동을 하는 택배·물류 노동자들이 심야시간 노동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그러한 규제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야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임금 삭감 없고 고용이 보장되는 심야 시간 노동 규제를 요구한다. 쿠팡의 물류·배송 시스템을 바꾸고 인력을 충원하면 마감시간 등을 통해 당일·익일 배송을 유지하면서도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심야 시간(0-5시)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고착되어 있는 현재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면 임금 삭감 없이 심야 시간 근무를 안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쿠팡이 부담할 비용인데, 그 비용은 지금까지 노동자의 건강을 제물로 삼아 쿠팡이 노동자에게 전가해온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쿠팡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심야 시간 노동 규제 논의를 시작으로 택배·물류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노동조합이 파악한 것만으로도 올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사망하였다. 마감 압박으로 노동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쿠팡 물류센터는 안 그래도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에 더해진 야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에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위해 임금 삭감 없고 고용이 보장되는 물류센터 심야 시간 노동 규제를 제안한다.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심야 시간 노동이 규제되어야한다는 전국택배노조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택배·물류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대원칙이 이번 논의과정에서 확고하게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쟁점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조율해가면 될 일이다.

지금껏 다른 규제 없이 야간 노동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을 '선택'하게 하는 현행 제도, 그리고 최소 인력으로 전국적인 당일 배송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쿠팡은 지금껏 물류 노동자들에게 그 비용과 책임을 전가해왔다. 그 결과 택배·물류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그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 시작된 쿠팡의 심야 시간 택배 배송 제한 논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물류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택배·물류 야간 노동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11월 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참고]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수료 삭감 보도자료(2025.3.6.)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몰지 마라!

일방적 수수료 삭감! 표준계약서 위반! 노조탄압! PJ대리점 규탄 회견

2025년 3월 6일(목) 11시, 쿠팡CLS 본사 앞(선릉역 4번 출구)

- 항상 택배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원청 쿠팡CLS가 대리점에 대해 매년 월 50~1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삭감하고, 대리점이 이를 고스란히 쿠팡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원청갑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쿠팡CLS PJ대리점은 2025년 수수료를 전년대비 건당 약 13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월 100여만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으로써 심각한 생존권 위협입니다.
-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수수료 삭감이 임금보전을 위해 배송물량 증가로 이어져 과로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 이미 작년 한해 쿠팡에서 야간 배송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쿠팡 새벽배송의 근무형태인 연속적 야간배송노동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 더욱 심각한 점은 PJ대리점에서 제시한 2025년도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서나 작성방식에서 표준계약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실제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불공정 갑질 조항들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수수료도 구간으로 명시하는 등 변질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택배 운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제4조(계약의 주요내용)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담당구역	계약 구역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협의)	
)수수료	집화수수료	1건당 _____ 원 또는 택배사업자 - 영업점 간 수수료 기준 금액의 _____ % 600 - 1100원 (계약단가 협의 및 프레스비백 회수 기준에 따른 변동)
	배송수수료	1건당 _____ 원 또는 택배사업자 - 영업점 간 수수료 기준 금액의 _____ % 600 - 1100원 (계약단가 협의 및 프레스비백 회수 기준에 따른 변동)
	지급일	매월 20일

<PJ대리점이 2025년도 제시한 표준계약서, 구역과 수수료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고 구역은 '계약 권역 내'라고 적시하여 특정하지 않았으며, 수수료는 '600~1100원'처럼 특정 금액이 아니라 구간으로 적시되어 있다.>

- 이는 쿠팡의 클렌징과 같은 상시적 구역회수 제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매년 연말마다 수수료가 삭감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상시적 구역회수

(변경)와 수수료 삭감을 택배노동자에게 용이하게 조치하기 위한 꼼수이자 택배현장을 교란시키는 심각한 갑질행위입니다.

○ 특히 이렇게 구역과 수수료까지 정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고 변동가능하게 적시함으로 하여, 표준계약서 제7조(위탁자의 준수사항) 2항의 갑질행위 금지 조항은 휴지조각이 되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7조(위탁자의 준수사항)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계약 기간 중 사전 합의 없이 담당 구역, 수수료 지급 기준 등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수취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 관리비 등과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 하에 타 업무를 수행할 경우 타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탁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
6. 계약 종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정산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7. 계약 종료 시 “수탁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
8. 계약 종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종 업종의 타 사업자와의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
9.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시에 배송지연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

<표준계약서 7조, 2항에서 구역과 수수료의 불리한 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더불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생활물류법 10조와 11조에 명시된 6년 계약개신청구권과 계약해지 절차 등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을 무력화 위반하는 내용 등의 불공정 갑질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한다)을 준용하여 수탁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내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 요청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사유 해소를 위해 상호 성실히 노력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 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대국민서비스로서 택배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 당사자의 동반성장 및 택배서비스의 질적 향상, 상호 경영여건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차, '21. 6. 22.)」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대고객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양 당사자는 월간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부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기타 본 계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또는 자격 등을 취득 및 유지하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동 자격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수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약기간 도중에 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등이 취소·정지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당사자는 상품 절도, 성범죄 등 기타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집·배송 물량의 증가로 인해 수탁자가 당일 내 위탁 업무를 완료하기 곤란하거나, 수탁자의 질병, 부상, 기타 건강상의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담당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건강검진(재검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건강검진 결과 건강상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건강검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물량·담당구역을 조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대고객 이미지 손상 또는 위탁자의 기업적 이미지 손상 시 1차 합의 후 이에 대하여 개선이 안될 시 계약 해지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⑨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⑩ 수탁자는 사내 대외비 외부 유출에 대하여 문제 발생 시 위탁자는 피해 보상 및 소송(訴訟) 진행을 할 수 있다

⑪ 수탁자는 퇴사 요청 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기본 30일 전 기준으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차 발생 비용 등 청구할 수 있다

⑫ 휴일 대체자 인수인계는 최대 3일 진행하여야 한다

⑬ 무단결근 시 용차 발생비용등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⑭ 수수료 변동 시 상호 협의하에 서면 동의한다

- 9 -

<PJ대리점에서 작성한 부속합의서 중 일부,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불공정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금 당장 표준계약서 위반하는 심각한 변질행태에 대해 관리감독과 더불어 쿠팡CLS와 계약된 영업점들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과 위반행태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택배노조 경기지부 쿠팡 일산지회는 &대리점이 제시한 삭감액의 50%를 인상하라&는 요구를 전달하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동결이나 인상이 아닌 대리점이 제시한 삭감폭의 50%만 줄여달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에도 해당 대리점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받는 수수료 단가를 노조에 공유했다는 점에 대해 대리점의 비밀을 누설했다며 조합원 개개인에 협박공문을 보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025-02-18-13



㈜피제이로지스틱스

수 신 자 ㈜피제이로지스틱스 최윤신님

참 조

제 목 ㈜피제이로지스틱스 계약사항 위반 및 제발방지 요청의件

○ 최윤신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지난 24년 12월 21일~24일 당사의 계약서 작성에 대해 계약사항 미이행 및 비밀유지서약서의 계약사항을 미이행 한 사실에 유감을 밝히며 즉시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1. 표준 계약서 부속합의 제 5조 9호 위반.

1) 수탁 자는 수수료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원칙으로한다

2. 비밀유지 서약서 1조, 2조, 4조, 5조 위반

3.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 비밀 누출 및 팀원들의 문의로 인한 업무마비 및 단가적 대외비 유출로 인한 입사 예정자들의 입사 취소 및 비밀 유출로 인한 타 업체와의 경쟁 도태 등 많은 업무의 차질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4. 해당 건에 대하여 소명 및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5. 해당공문을 끝으로 제발방지의 협조 요청 드립니다.

○ 끝.

담당자) 김태형 이사 (010-2112-0573)

문서번호) 제 25-02-18-13

시행일자) 2025년 02월 18일

수편) 경기도 파주시 능안로 231번길 23(102호 ㈜피제이로지스틱스) / pj_taehtyong@naver.com

㈜피제이로지스틱스

대외비 25-02-18-13 본 문서는 ㈜피제이로지스틱스의 자산이며 외부반출 절대 불가.

<PJ대리점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문>

○ 이뿐만아니라 하등의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새로운 교섭절차를 요구하고, 감기몸살을 이유로 교섭을 연기하는 등 교섭을 해태하면서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 쿠팡 일산지회 PJ대리점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3월 2일(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3월 3일(월) 하루 경고파업을 진행하는 등 생존권을 지키고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수수료 삭감 저지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 PJ대리점은 지금이라도 성실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수수료를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삭감 당한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일을 오래 할수록 임금이 깎이고 건강이 훼손되는 일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PJ대리점은 수수료 삭감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변질시키지 말고 원 취지에 맞게 다시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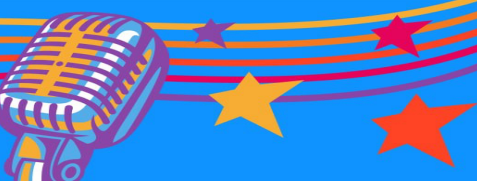
[illegible]

[illegible]

내 일상에서 택배란 무엇인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늦어도 괜찮아 시민대행진
시민자유발언



일시-장소 : 11월 23일 (일) 13시 광화문 동십자각
 신청 기간 : 11월 19일 (수)까지
 신청 접수 : 온라인 큐알코드스캔으로 신청 ▶



시민 자유 발언 확정은 10명 이내로 주최 측에서 접수 후
 추첨 등의 방식으로 발언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연락드립니다.
 과로사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

11.23 '속도보다 생명의 사회로'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 시민자유발언 신청자 모집-

'속도보다 생명'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3차 사회적합의가 제대로 합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유발언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내 일상에서 택배란 어떤 의미인지? 택배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11월23일(일) 13시

장소 : 광화문 동십자각

신청기간 : 11월19일(수)까지

시민자유발언 확정은 10명 이내로 주최측에서 접수후, 추첨등의 방식으로 발언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연락드립니다.

문의 :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
 (010-9971-3830)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3차 사회적합의는 속도보다 생명의 사회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3차 사회적합의는 속도보다 생명의 사회로'
 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 정당 대표자 1천인 선언운동

택배노조는 현재 '속도보다 생명'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택배 3차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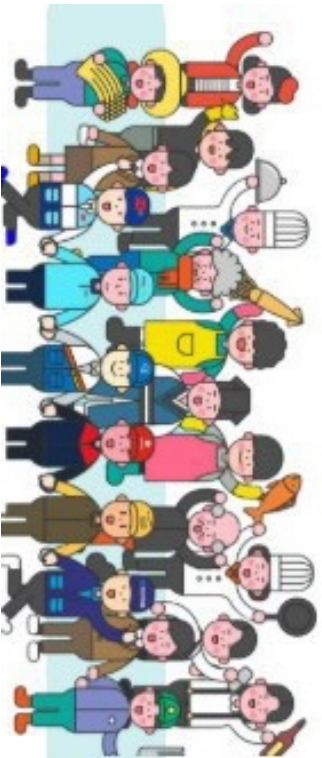
이번 사회적 대화기구의 주요 의제는 새벽배송과 365일배송에 따른 택배노동자의 과로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택배산업내에 속도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새벽배송과 365배송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생명'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3차 사회적합의가 제대로 합의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광범위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정당 대표자의 선언운동에 동참 요청드립니다. (11월20일 목요일에 1천인 선언운동 보고 기자회견을 기획중)

선언운동 참여링크 : <https://forms.gle/W6bRucFZiG8dKHmH6>
 선언운동 인증샷도 출력하여 각종 SNS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속도보다 생명의 사회로!

소비자·시민·사회단체·정당 대표자 1천인 선언에 함께 합니다!



11.23 과목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쿠팡노동자의건강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사)김용균재단 |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권리찾기유니온 | 노동당 | the삶 | 라이더유니온 |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 호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반올림 |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 서교인문사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정의당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쿠팡대책위원회 법률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4.27시대연구원 | 가톨릭농민회 | 경기진보연대 | 경남진보연합 | 광주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민주권연대 | 기본소득당 | 노동당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녹색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구경북진보연대 | 민들레 | 민생경제연구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진보당 | 반올림 | 보건의료단체연합 |
부산민중연대 | 불교평화연대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진보연대 | 서울진보연대 | 알바노조/알바연대 | 예수살기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
울산진보연대 | 일과 건강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빈민연합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택배노동조합 | 전국학생행진 | 전남진보연대 | 전두환심판국민행동 | 전태일노동대학 | 전태일재단 |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네트워크 | 참여연대 | 촛불문화연대 | 충북진보연대(준)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통일의길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